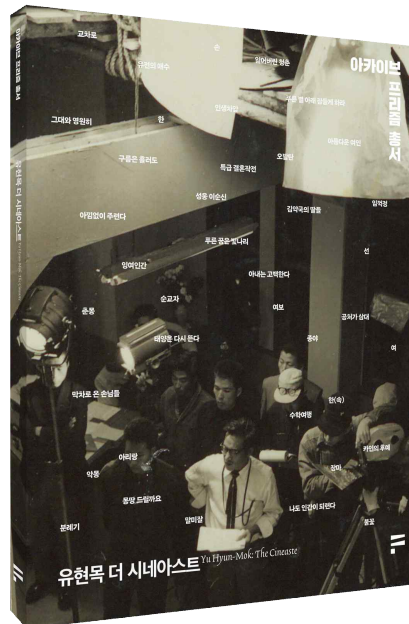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 유현목 감독 탄생 100주년 기념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유현목 더 시네아스트》 발간

한국영상자료원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세 번째 권, 2026년 1월 발간
아카이브 자료로 살펴보는 ‘시네아스트’ 유현목의 작품 세계



▲ 도서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유현목 더 시네아스트》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2025년 유현목 감독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비평서 《유현목 더 시네아스트(Yu Hyun-Mok The Cineast)》를 발간한다. 이번 도서는 영상자료원의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세 번째 권으로, 시나리오, 콘티북, 심의서류 등 영상자료원이 소장한 1차 사료를 토대로 유현목 감독의 영화 미학과 연출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책의 제목인 '유현목 더 시네아스트'는 정관사 '더(the)'의 의미와 함께, 평생 '더(more) 깊고 나은' 영화적 세계를 지향했던 감독의 예술적 고집을 중의적으로 담고 있다. 유현목 감독은 1950년대 데뷔 이후 전성기인 60년대를 지나 80년대 침체기까지, 산업적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술영화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관

되게 지켜온 인물이다. 본 도서는 이러한 궤적을 한국영화사적 맥락 속에서 정리한다.

□ 아카이브로 읽는 유현목의 'Magnum Opus(결작)'와 'Opera Neglecta(소외된 작품)'

전체 2부로 구성된 이 도서는 유현목 감독의 영화적 성취를 상징하는 대표작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작품들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그의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1부 'Magnum Opus'에서는 한국 영화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받는 <오발탄>이 통과해온 굴곡진 역사와 그 속에 새겨진 검열의 흔적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아울러 문예영화와 반공영화라는 외피 속에 녹아든 감독 특유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시대를 앞서갔던 유현목의 실험영화들이 지닌 선구적인 미학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이어지는 2부 'Opera Neglecta'에서는 대형 사극, 코미디,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영화에 이르기까지 유현목의 작품 세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러 장르를 두루 비증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예술가인 동시에 직업 감독으로서 고군분투해야 했던 유현목의 생존 전략을 분석하고, 그 치열한 삶의 궤적 안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거장의 미학적 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

□ 프레임에 새긴 궤적, 42편의 결작 스틸과 사진으로 복원한 유현목의 영화 세계

또한 이번 총서에서는 단순한 텍스트 기록을 넘어 풍부한 이미지 자료로 유현목의 영화 세계를 입체화하고자 했다. '프롤로그' 섹션에서는 데뷔작 <교차로>부터 마지막 연출작 <말미잘>에 이르는 42편의 전 작품 스틸컷을 집대성하여 감독 특유의 미학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증언한다. 1부에 이어지는 'Between Frames'에서는 영화 프레임 사이에 숨겨진 창작 현장과 감독의 생애를 담은 사진들을 통해 인간 유현목의 면모를 밀도 있게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는 각 시대의 감수성과 영화적 특징이 응축된 주요 작품의 오리지널 포스터 컬렉션을 수록하여, 거장이 한국영화사에 남긴 시각적 유산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아카이브의 정수로 복원한 유현목의 입체적 면모와 영화사적 미래 가치

이번 도서는 영상자료원이 장기간 축적해 온 귀중한 자료들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영역을 자료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발탄>의 다양한 시나리오 판본과 감독의 친필 콘티북,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심의서류 등 파편화되어 있던 1차 자료들을 현대적 비평과 결합하여 연구자와 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리얼리즘의 거장'이라는 단편적인 수식어에 갇혀 있던 유현목의 세계를 장르 및 실험 영화, 나아가 국책영화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조명함으로써 예술가의 고뇌와 생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한국 영화사 속 작가주의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 이번 도서는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유현목 감독 관련 아카이브 자료들을 비평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그의 작품 세계와 연출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사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참고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해당 도서는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정가 2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참고내용] 도서 정보

- 도서명: 유현목 더 시네아스트 (아카이브 프리즘 총서 03)
- 책임편집: 정종화(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장), 이수연(연구원)
- 주요 저자: 이순진, 정영권, 박유희, 김수연, 이준엽, 백동엽, 정종화, 조준형, 이지윤, 이수연
- 발간일: 2026년 1월 2일